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오늘 출범

‘광주형 일자리’ 컨트롤타워 ... 산학민관 대표 15명 구성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중추 기능 담당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운용을 총괄할 기구로,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산·학·민·관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관계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의 운용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실무위원회는 노사관계 및 경영·직업장 혁신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실행전략 마련, 사

회협약 의제준비 및 사회협약 도출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윤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꾸릴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경과와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대학 등을 방문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6월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윤 시장은 “최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큰 의미 중 하나는 고용절벽 현실에서 광주형 일자

리 모델이 유일한 대안으로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사업을 이끌어갈 동력이자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자리잡아야 할 의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정착시키는데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시장 파격 인사 실험

민선 6기 후반기 들어 윤장현 광주 시장이 파격적인 인사 방식을 적용해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기관(4급)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기존에 없던 눈높이 면접 시험을 치르는 인사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직접 승진 후보들을 불러

는 성과 및 실패한 사례, 원인 분석 등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윤 시장이 직접 시장실에서 일대일 면접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행정직 8명과 시설직 5명 등 13명이다. 승진 후보자 44명 중 30명은 고배를 마셔야 한다.

4급 승진대상자 43명 직접 면접 직원들 장단점 살려 배치위한 포석

접을 하는 것은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번 정기인사의 서기관 승진 후보 대상자 43명이 눈높이 면접을 치렀다. 지난 15일 치러진 눈높이 면접은 2시간 전야 연락이 가는 등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회의실에 긴급 소환된 대상자들은 27가지 주제를 받았다. 민선 6기 광주시장의 의로운 변화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자신의 공직생활 중 의미 있

따라서 승진 안경권 내 대상자들은 이번 윤 시장의 갑작스런 인사 실험에 당황해 하는 반면, 승진권 밖에 있던 후보들은 ‘승진 대박’을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는 후문이다. 윤 시장의 새로운 시도는 승진 대상자를 직접 검증해 발탁하는 한편, 보직 인사에서도 직원들의 장단점을 살려 적절한 배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연초 인사시행계획에 없던 것이어서 점수화가 안되고 ‘참고용’이란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양성아~ 평등아~ 함께 가자! 지난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날 행사의 슬로건인 ‘양성아~ 평등아~ 함께 가자! 모두가 누리는 평등사회로~’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호남고속철 개통 지역 유통부문 기여도 미미”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 KTX 경제 효과 극대화 전략 시급

호남고속철 개통이 유통부문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다고 분석됐다. 유통연구는 증가하지만 이들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유통업계의 유인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환경록 책임연구위원과 문경년 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인포’에 발표한 보고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 유통부문 변화와 시사점’에서 “유통연구 증가가 유통부문의 ‘부흥’으로 이어지

도록 광주·전남 공동의 투트랙 상생협력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극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 대형소매점 판매액,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통부문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플러스 영향이 미흡하거나 지역경제 활성

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대형소매점 경상금액은 광주 0.221%, 전남 0.213%의 월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개통월 기준 16개 시·도의 전년 동월 대비 대형소매점 경상금액 증감률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광주·전남 유통연구 증가가 대형소매점 매출 견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2015년도 분기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

수(경상지수)는 광주와 전남 각각 2015년 1분기,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경년 연구위원은 “정자역을 중심으로 거점화하고 가치소비, 알뜰·스마트 소비 등 유통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연구 유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문화예술, 의료, 관광 등 타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업체별로 맞춤형 특화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3개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사회복지·지역개발·중점과제

전남도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중점 과제 3개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 ‘가’를 획득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7개 관계 중앙부처에서 공동 실시하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중점 과제 등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이들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2015년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각각 광역시

(8개)와 도(9개)로 나눠 9개 분야, 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군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지방행정평가 정보시스템 도입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정성평가 지표의 선택과 집중 ▲전체 지표의 76%를 차지하는 시·군 실적 향상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명일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결과는 도와 시군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금부터 내년도 평가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공모

전남도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제공모하기로 했다. 금융과 복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신보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남모(55)씨와 김모(54)씨 등 2명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추천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

고 금융복지 전문가를 더 찾아보기 위해 후보를 제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앞으로 일정을 다시 확정해 이사장 후보 제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전남신보 이사장 후보 공모에는 모두 9명이 응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남 방향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